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저자: E. Duncan Hughes

삽화: Byron Unger, Lazarus

각색: E. Frischbutter, Sarah S.

번역: Koh Woon Ch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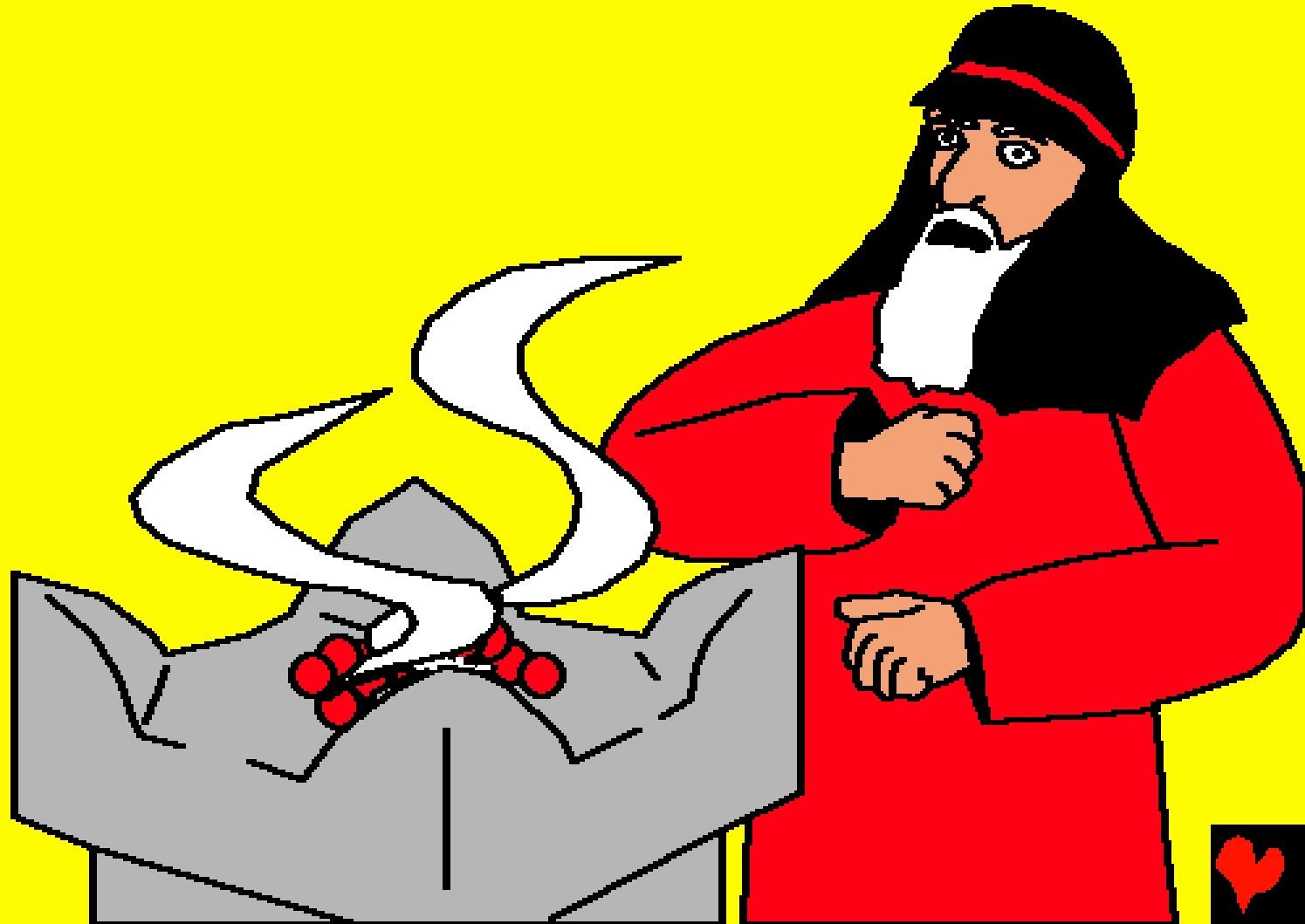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

©2007 Bible for Children, Inc.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사가랴라 불리는 늙은 제사장이
향료를 태우고 있었다. 성전 밖에선 사람들이 기도를 했다.
갑자기, 사가랴는 떨었다.



천사가 내려왔다. "놀라지말라," 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셨으니라. 너의 부인이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의 출생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할 것이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소서, 사가랴여.” 밖에 있던 사람들이 외쳤다.
그들은 사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믿지
않았기에 요한의 출생까지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가브리엘이 말한
것을 알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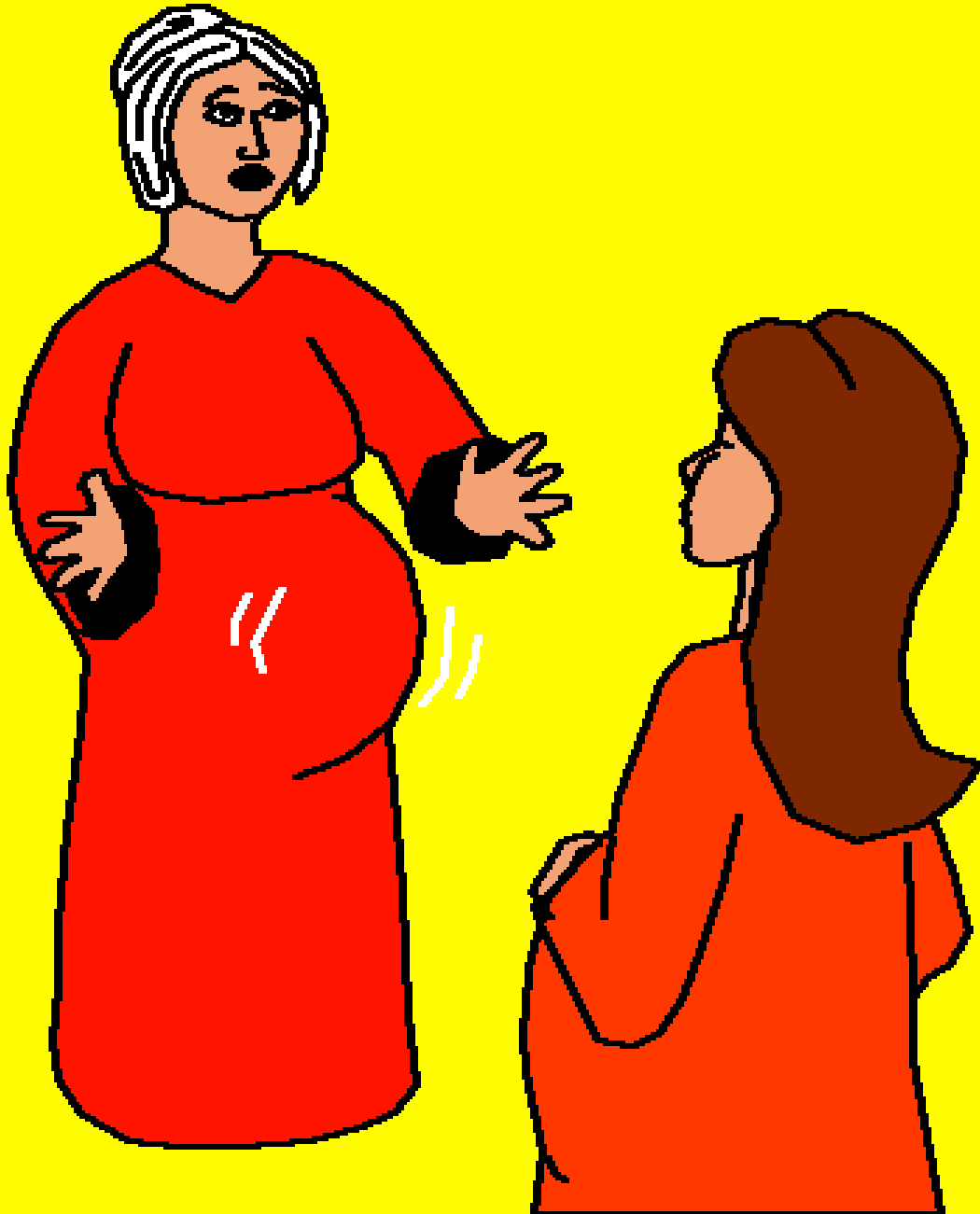
집에서, 사가랴는 천사가 그에게 한 모든 말을 적었다.
그의 부인인 엘리사벳은 놀랐다. 그들은 아기를 위해 항상
기도해 왔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날수 있을까??





곧 엘리사벳은 아이가
나올 것을 알았다.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다. 어느
날, 엘리사벳의 친족인
마리아가 방문했다.
마리아 또한 아기를
잉태하고 있었다.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 엘리사벳은 아기가 몸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녀는 마리아의 아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 두 여인은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다.



엘리사벳의 아기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났다. “그를 그의 아버지처럼 사가랴라 하라,” 어떤 제사장들이 말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다. “아니요!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요.” 사가랴가 그 말을 썼을 때 그의 입이 열렸다. 사가랴는 하나님께 찬양했다.



요한이 자랐을 때 그는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 엘리야
같았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곧
오시리라고 사람들에게 전했다.
유대교인들은 요한을 싫어했다.
요한이 그들에게 “회개하라! 죄
짓는 것을 멈추라.”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 듣는 것을 싫어했다.



다른 이들은 그를 세례요한이라 불렀는데 이유는 요한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예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요한에게 오셨다. 예수님께서서 제게 세례를 주셔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말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시길, "내가 세례를 받게 하라." 그리고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세례요한은 비둘기의 형태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신 성령을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호였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목자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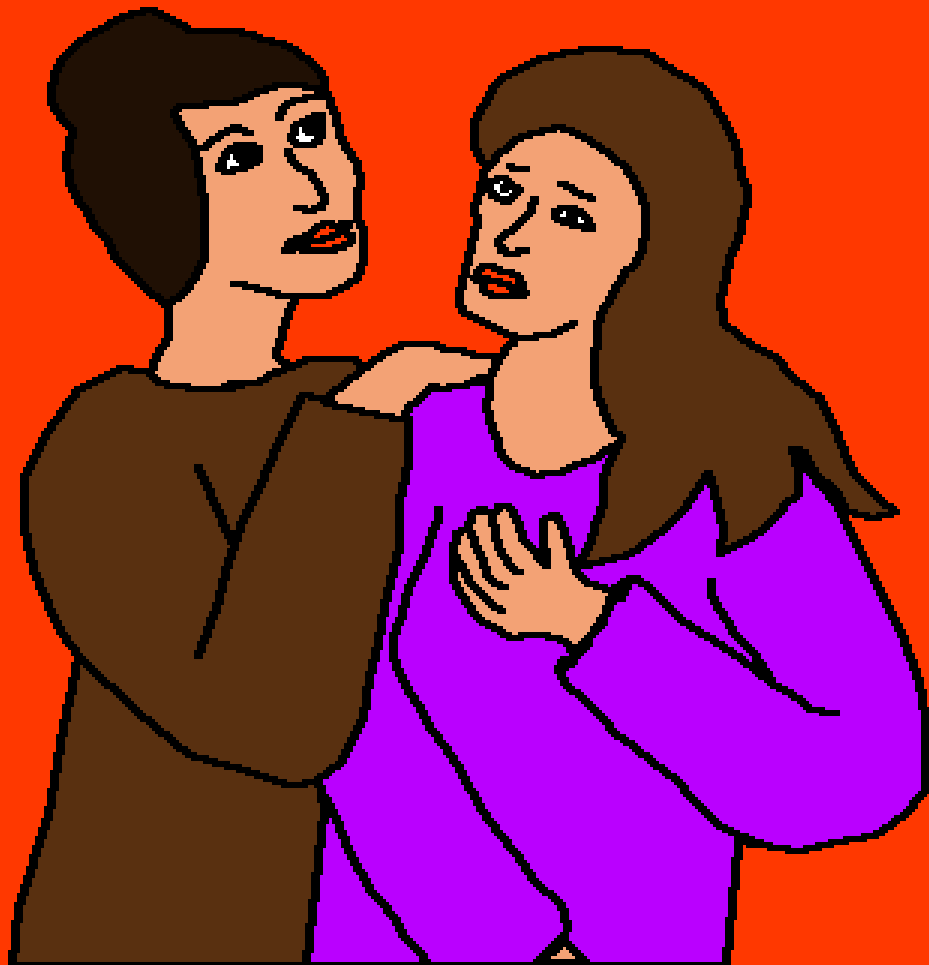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하지만 사악한 왕이었던 헤롯은 세례요한을 감옥으로 보냈다.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것은 너의 죄이니라.” 요한이

헤롯에게 말했다. 헤롯은 그 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세례요한이 죄 없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죄 짓는 것을 멈추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감옥에 갈지라도 죄를 반대하며 가리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하지만 사악한 왕이었던 헤롯은 세례요한을 감옥으로 보냈다.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것은 너의 죄이니라.” 요한이 헤롯에게 말했다. 헤롯은 그 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세례요한이 죄 없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죄 짓는 것을 멈추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감옥에 갈지라도 죄를 반대하며 가리키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소녀는 고민했다.
세례요한을 싫어했던
그녀의 악한어머니인
헤로디아가 소녀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일러주었다. 그것은
끔찍했다!



“제게 쟁반에 담은 세례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소녀가 헤롯에게 말했다. 그는 약속한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그 약속을 거절할 수 없었다. “세례요한의 머리를 잘라 내게 가져오라,” 헤롯이 명령했다. 그의 종들은 그의 명령에 순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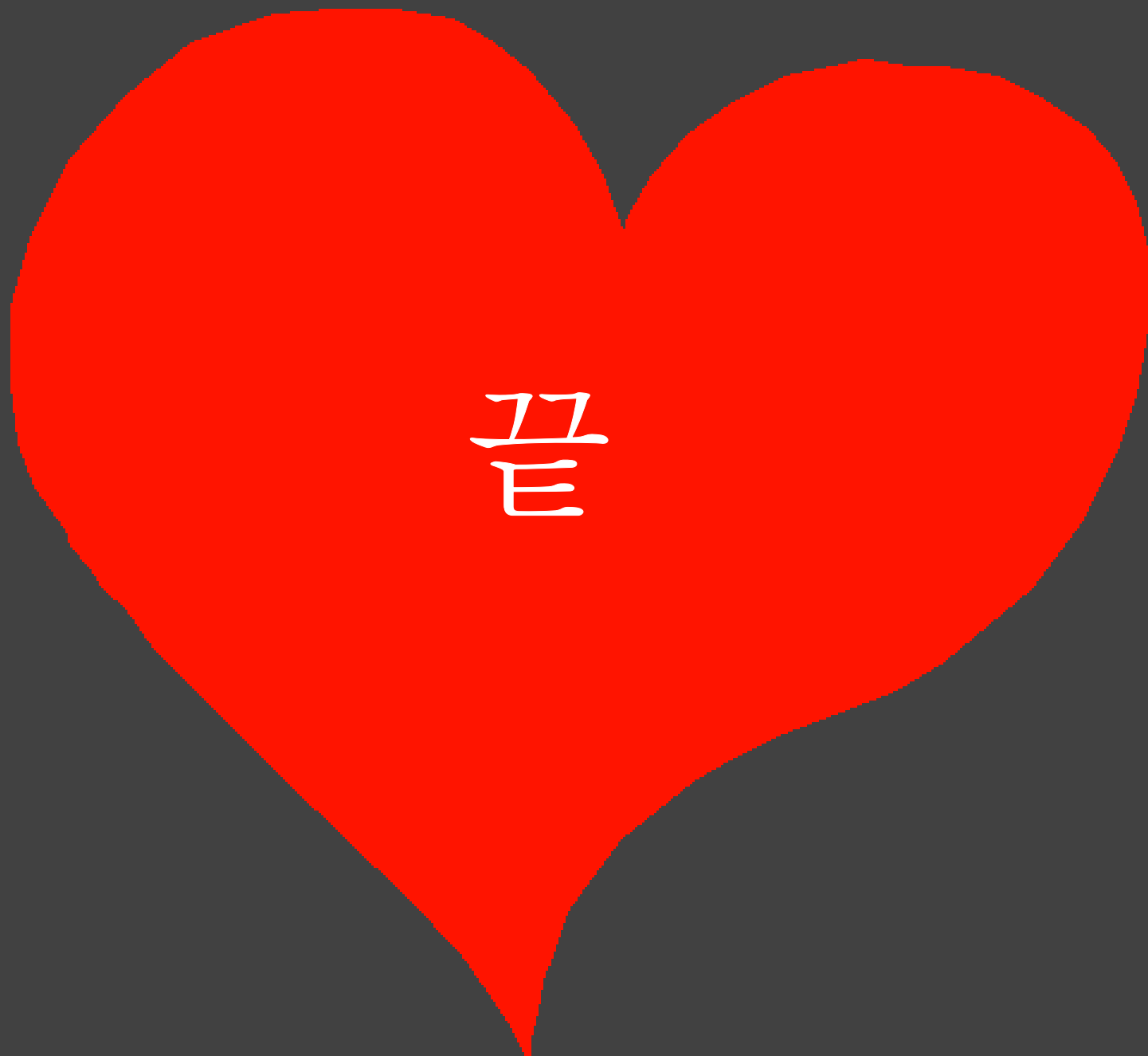
슬프게도 요한의 친구가 하나님의 용감하고 신실한 종이었던
요한을 묻어주었다. 요한은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마감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서 그들의 슬픔을
편안하게 해주실 것을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 마가복음 6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